

고흥군립하늘공원 공정률 75% 돌파... 내년 1월 문 연다

10월 완공 목표...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추진 중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률 75%를 넘어서며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업은 총 1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흥군민의 오랜 숙원으로, 품격 있는 공공 장소시설 조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읍 호령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봉안당, 자연장지(잔디형), 유해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 및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되었다.

특히, 최근 장례 문화의 변화와 함께 장

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봉안당은 당초 8,500기에서 16,160기로, 자연장지는 1,883기에서 2,214기로 늘어나, 향후 이용자의 편의성과 수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사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봉안당 내부는 타일 마감 공사가 한창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조경 등 토목공사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 묘지 관리를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누구나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공정도 군민 불편이 없



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냉방 장비와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군은 현재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방안 마련도 병행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하늘공원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타 지역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흥 마을에 행복 전해요”

11개 읍면 217개 마을에서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장성군이 고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등에 사용된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고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217개 마을의 고유한 특성과 개선 사항,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한다. 지역민 편의 향상과 공동체 결속력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장성읍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용 봉사와 효도사진 촬영 등을 추진해 호응이 높다. 진원면은 ‘안전 먹거리 나눔행사’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살기 좋은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남면은 마을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도 제

작했다.

동화면은 마을을 순회하며 칼같이 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삼서면은 마을과 주민을 주인공으로 한 ‘마을사진 페스타’를 열 계획이다. 삼계면에선 수제 오란다 만들기과 ‘동네 수리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황룡면은 마을 신문을 만들고, 마을 현판을 제작하는 서각공예 시간도 마련했다. 서삼면은 마을 주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했다.

북이면은 실생활에 유용한 편백제품을 직접 만드는 공예문화 프로그램 요구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한다. 지역민 편의 향상과 공동체 결속력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장성읍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용 봉사와 효도사진 촬영 등을 추진해 호응이 높다. 진원면은 ‘안전 먹거리 나눔행사’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살기 좋은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남면은 마을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도 제

강진군 육아지원센터가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중인 251개소 중 우수기관 6개소 선정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이 농촌지역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을 얻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농촌형 보육서비스 우수사례 ‘대상’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모범사례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면 단위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오감 발달 음악·미술·체육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 ‘고양이 모모와 떠나는 예술여행’ ▲이동식 장난감·도서 대여 ▲이야기할머니와 함께하는 읽기 중재 프로그램 ▲부모 대상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부모들은 양육 부담을 덜며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다. 지역사회 역시 보육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이번 수상이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지향하는 균형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교육·돌봄·문화가 어우러지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와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수민 강진군 육아지원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강진군육아지원센터가 다양한 돌봄·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은(군수 김철우) 오는 9월 20일 까지 관내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딸기 조기 정식에 따른 생육 지연과 수확 불안정을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딸기 화아분화 검경’은 딸기 묘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 분화 여부와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딸기 정식의 최적 시기를 판단할 수

보성군,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실시

꽃눈 분화 확인 후 정식해야 안정적인 초기 수확 기대

있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검경을 희망하는 농가는 딸기 묘 3~5주를 무작위로 채취해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에 방문하면 된다.

현재(2025년 8월 28일 기준) 보성군의 딸기 재배 면적은 총 72ha, 216농가에 이르며, 지역을 대표하는 고소득 특화 작목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출하하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에 유리하며, 꽃눈이 충분히 분화된 상태에서 정식해야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반면, 꽃눈이 분화되지 않은 묘를 조기에 정식할 경우 영양생장이 지속돼 대

출현이 늦어지고 수확이 지연되며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육묘 시기 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화아분화 형성 시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정식 전 검경 서비스를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정식 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반드시 화아분화 검경을 거쳐 꽃눈이 형성된 묘를 정식해야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딸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讀(독)파민 터지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책 읽기를 통해 군민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마음버스>, <사자마트>의 김유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를 위한 연극 <행강 공주와 온달

‘讀(독)파민 터지는 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곡성어린이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풍성

바보) 공연 △가족 참여형 북캠핑 ‘북나잇! 굿나잇!’ 체험 △철새를 주제로 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과 탐방 등이 준비돼 있다.

부대행사로오는 <마음버스> 원화 전시와 ‘우리들의 독서책장 꾸미기’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일상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과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 참여 신청은 9월 2일부터 곡성군

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도서관운영팀 ☎061-360-8591)으로 하면 된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흥군,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장흥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저하, 눈부심, 복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眼) 질환으로, 단순히 노안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흥군은 2017년부터 매년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25명을 대상으로 총 2천5백만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과 시력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망막질환, 녹내

장 등 각종 안과적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을 도와, 재단을 통해 수술비가 지원되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장흥군민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1인 1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내장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군민의 눈 건강을 지키고, 실명 예방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5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